

# 「統一新羅時代의

## 木造建築樣式」

金 東 賢

### 一、序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은 現存하는 것이 없어 當時의 建築樣式을 把握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存의 木造建築은 最古의 建築物이 安東 鳳停寺 極樂殿이며 그 다음으로 榮州의 浮石寺 無量壽殿, 修德寺 大雄殿 등으로 이어져 朝鮮末期의 建築에 이른다. 그러나 이제까지 木造建築樣式史에 대한 系統은 高麗末의 上記 鳳停寺 極樂殿, 그리고 浮石寺 無量壽殿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斷片的으로 統一新羅時代의 石造建築, 그리고 高句麗時代의 壁畫古墳內의 木造建築資料를 통해 간헐적으로 樣式論이 推察되어 왔다. 그러나 現存하는 木造建築樣式系統은 前代의 統一新羅時代 木造建築樣式을 把握하지 않고서는 尙상 中世以後의 樣式史에 머물수 밖에 없는 實情이며 인제고는 統一新羅時代의 建築樣式을 整理해야만 되는 宿命的 立場에 있어야 되었다. 그러나 이 立場은 三國時代로 이어져 名實相符한 韓國木造建築 樣式的 根源이 밝혀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한다. 本稿는 이러한 事情에 立脚하여 六〇年代 以後 新出된 木造建築資料를 添加하여 既存 諸說을 再整理해 보는데에 그치고 있으나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樣式을 조금이나마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二、平面構成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 平面이 알려진 것은 當時 寺刹建物인 金堂

講堂, 中門, 塔 등의 平面이며, 宮闕建築의 建物로는 雁鴨池 周邊에서 確認된 建物들이다<sup>①</sup>.

이들 建物들을 보면 木塔의 方形建物과 金堂, 講堂, 中門 등의 長方形 平面 建築址들인데 共通點은 建物 內部에 內陣柱가 모두 있다는 것이며 寺刹建物에서는 正面의 柱間이 三間에서 九間까지의 類型이 밝혀졌고 側面 柱間은 二間에서 五間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들 평면형식은 現存하는 木造建築의 正面 및 側面 柱間數와 크게 다른 바 없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였듯이 外陣柱 안쪽으로 內陣柱를 둘러 外陣空間과 內陣空間이 平面에 依해 區劃되어 있었고 平面 內容으로 보아 推定하건데 우진각지붕형식 및 팔각지붕, 그리고 맞배지붕 등이 모두 있을 수 있는 平面形을 취하고 있어 現存의 木造建築 外形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卷第三十三 屋舍條에 보면 室의 廣長크기를 規定하면서 眞骨은 二十四尺을 넘지 못하고 六頭品은 二十一尺 五頭品은 十八尺, 四頭品에서 百姓에 이르기까지는 十五尺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sup>②</sup>. 이 記錄을 보면 室의 길이와 넓이를 定함에 있어, 二十四, 二十一, 十八, 十五尺 등 三尺 單位로 減少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三尺이 室의 크기를 定하는 基準 單位가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柱間의 크기는 三尺의 倍數로 增加 또는 減少되어 六尺, 九尺, 十二尺, 十五尺……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三、軸 部

軸部는 礎石 위 기둥으로부터 拱包에 이르는 各部材를 總稱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柱間裝置도 包含된다.

軸部の 資料로서는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表裝畫(湖巖美術館所藏, 國寶第一九六號)에 나타난 資料와 雙峰寺 激巖禪師浮屠(國寶第五七號)에 나타난 軸部, 그리고 石窟庵 窟內의 雙柱 등에서 當時의 木造建

築軸部內容을 一部 復元할 수 있을 程度이며 拱包에 관한 資料 역시 上記의 遺構와 一九七五年 發掘調査된 雁鴨池 出土 拱包部材들이 있으며 感恩寺址、佛國寺、石窟庵、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寶物第一五七號)、義城塔里 五層石塔(國寶第七七號) 등의 石造物에서 拱包的 構成部材를 把握할 수 있다.

### 〈기둥〉

기둥에 관한 資料는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表裝畫(七五五年)에 있다(도1). (以下 經書로) 이 기둥을 보면 細長한 모양의 기둥인데 기둥머리를 오그린 것과 그대로 머리를 수평으로 짜른 두가지 형식이 보인다. 또한 기둥 二個에는 모두 배흘림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雙峰寺 激鑿禪師 浮屠에서는 確實히 배흘림수법이 보이고 있어(도2) 엔타시스 技法은 統一新羅期에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八角柱로서는 石窟庵 主室 앞의 八角柱와(도3) 佛國寺 左經樓 石柱를 例로 들 수 있다. 石窟庵의 八角柱는 八角短柱 四個를 礎石으로 부터 쌓아 올렸는데 四個의 短柱 사이에는 八角仰蓮 中臺石을 끼우거나 檐遮石을 短柱사이에 끼워 組積한 手法의 기둥인데 意匠과 力學的 役割을 하도록 꾸며졌다. 이 八角石柱의 構成을 보면 下部에는 긴 石柱를 놓고 上部쪽을 향하면서 차차 八角柱 柱를 낮추어 놓아 安定感을 갖도록 하였으며 굽기도 위쪽을 향할 수록 주리고 있어 木造建築에서의 民흘림 手法과 같은 意味를 갖고 있어 注目된다. 이 기둥들의 上薄下厚의 技法은 當時 木造建築에 있어서 民흘림의 存在를 의미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둥형식은 高句麗의 壁畫古墳 雙楹塚의 雙楹에서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도4). 하나는 무덤에 나타난 八角柱이고 또하나의 例는 佛教建築에 表現된 것이지만 이 遺構의 두 기둥들은 모두 八角이라는 點과 蓮花礎石을 취하고 있다는 點, 그리고 民흘림의 技法들이 서로 같은 意匠 感覺에서 나온 結果라고 할 때 高句麗나 統一新羅 두 나라 사이의 建築的 意匠은 서로 相通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中國의 경우 唐代建築중 기둥머리를 圓柱나 角柱 모두 水平으로 切斷한 것과③, 동굴려서 水平으로 짜른 것이 있고④, 日本 建築에서도 奈良 時代의 藥師寺 東塔과 東大寺 法華堂內部(七三三年)、海龍王寺 西金堂 등의 建物 기둥은 水平으로 기둥머리를 切斷하였으며, 기둥머리를 동굴려 짜른 것도 唐招提寺 金堂을 비롯하여 여러 建物에서 發見되고 있어⑤ 七世紀~八世紀間의 木造建築 기둥모양은 大體로 두가지 手法의 기둥머리 樣式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배흘림의 경우에는 六世紀 中葉 北齋의 石柱 위에 놓인 家形의 기둥에 배흘림이 보이는 데(도5) 이 기둥은 全高三四、三cm, 柱徑 最大値가 八、一cm이고 배흘림이 가장 강한 곳이 기둥 全高의 三分之一되는 곳에 있다. 雙峰寺 激鑿禪師 浮屠에 보이는 배흘림 기둥도 全高一、〇七二尺 柱徑에서 上部로부터 七寸되는 곳이 가장 배가 불러 기둥뿌리에서 三分之一 높이의 굽기가 最大直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⑥.

### 〈拱包〉

拱包는 柱頭 小累, 檐遮 등이 組合되어 처마部分의 荷重을 기둥에 전달하는 部材로서 특히 東北亞圈 木造建築에서는 特徵的 構造材 및 意匠材로 注目을 받고 있는 部分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에서의 拱包 出現은 高句麗 壁畫古墳이다. 따라서 木造建築에서의 拱包 사용은 三國時代로 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不斷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에 어떤 種類의 拱包가 어떤 結構方法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確實히 알 수 없다. 다만 石造建築에 보이는 外形의 資料와 經書에 그려진 建築圖가 全形의 一部를 把握할 수 있는 資料가 될 뿐이다. 그러나 一九七五年 發掘된 雁鴨池에서 拱包部材의 하나인 檐遮實物이 出現되고 小累間壁 등이 나타나 唯一하게 當時의 木部材를 대하게 되었다⑦.

拱包의 全形, 물론 이것도 外觀만이지만 그 內容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은 湖巖美術館의 華嚴經 經書의 拱包이다.

이 經書의 栱包 內容을 살펴보면 柱頭 위에 頭工을 올리고 小累, 檐遮, 小累順으로 짜여 道里를 받게 하였고 頭工과 짜여진 山彌檐遮(建物外部로 튀어나온 檐遮)가 行工檐遮를 받고 있다. 行工檐遮 위에는 소위 三斗式 小累 配置로 이들 서로가 外目道里를 받게 한 形式이다. 이 經書의 栱包와 中國 唐代의 慈恩寺 大雁塔門楣石刻 佛殿圖에 나타난 栱包(도6)와를 比較하면 大雁塔의 경우에는 頭工 위에 長舌를 넣고 다시 長舌 위에 檐遮를 짚아 二重頭工의 形式인데 반하여 湖巖美術館所藏의 것은 柱心에 長舌를 넣지않고 바로 柱頭 위에서 外部로 나온 山彌가 行工을 받도록 한 것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두 佛殿圖에 나타난 栱包的 構造法은 畫風自體나 表現手法이 흡사하고 柱頭, 小累 行工檐遮 등이 同一하여 羅·唐의 木造建築 技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示唆해 주는 좋은 比較資料라 할 수 있다. 經書에 나타난 佛殿建築圖가 모두 中央部가 損失되어 귀包 이외의 平柱上栱包的 內용은 알 수 없고 또 空間包가 있었는지 아니면 大雁塔 門楣石에서와 같이 人字形臺工이나 其他 臺工, 花盤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다.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에서 보면 栱包는 華嚴經 經書보다 簡單한데 柱頭 위에 三斗式 栱包를 올린 形式을 취하고 있어 注目된다. 이러한 三斗式 栱包形式은 高句麗 壁畫古墳중 安岳二號墳, 龜甲塚, 舞踊塚, 角抵塚 등에서 보이며 中國의 경우에는 後漢 때에 그 例가 있으며(北魏 雲岡石窟을 비롯한 六朝石窟에서는 柱頭만의 것과 西域系의 異形栱包가若干 있으나 主流는 三斗式 栱包이었다.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의(도7) 경우에는 柱頭 위에 檐遮만이 浮彫되어 있어 三斗式과는 다르나 基本樣式은 百丈庵 三層石塔과 大同小異한 形式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石造物에 나타난 栱包는 木造建築栱包를 略化시킨 形式일 수도 있어 木造建築에 實際 사용되었는지 어떤지에 대하여는 確實히 알 수 없다.

다음은 栱包部材인 柱頭, 檐遮, 小累 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이들 部材는 앞의 資料들과 雁鳴池의 新出資料, 그리고 感恩寺 出土 石欄

干의 童子柱, 佛國寺 蓮花七寶橋 左右側의 石築에 보이는 資料들 石窟 庵前室의 檐遮石과, 八角柱의 檐遮 등에서 그 細部를 알 수 있다.

雁鳴池에서 出土된 栱包部材로는 柱頭材 一點과 檐遮材 四點, 小累間 壁 一點 등 모두 七點이었다. 柱頭는 上面의 一邊이 二三, 五cm, 높이 一四, 一cm, 底邊 一五, 八cm의 크기였는데 上面은 二方으로만 홈이 파여져있고 他 二方은 막혀 있어 典型的인 柱頭 모양과는 다르다(도8)。 따라서 이 部材는 平柱나 隅柱에는 사용될 수 없는 部材이고 맞배지붕의 경우 側面의 平柱나 高柱 아니면 柱頭形의 점시받침材로 臺工 위나 花盤 위에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나 二斗式 혹은 三斗式의 簡單한 栱包形式이라면 一般平柱에도 사용될 수 있는 部材이다. 이 柱頭 上面에 파여진 홈의 幅은 一四, 五cm로 檐遮를 꽂아 맞출 수 있는 크기이며 홈의 길이는 五, 三cm밖에 안되었다. 柱頭홈은 강한 曲面으로 處理하여 鳳停寺 極樂殿의 柱頭홈과 같고, 바닥면에는 徑 三cm 정도의 楕圓形이 파여져 있어 밑 部分의 部材와 結構시킬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 部材의 特徵은 굽을 曲線으로 잘라낸 것인데 이러한 曲線홈은 雁鳴池發掘以前까지는 統一新羅時代의 石造物과 高麗 때의 鳳停寺 極樂殿에서만 있어 統一신라기의 實存 木造建築에 이러한 굽形의 柱頭를 가진 建物이 있었는지 모호한 상태에 있었으나 雁鳴池의 曲線홈 柱頭가 出現하므로서 鳳停寺 極樂殿의 栱包部材樣式 考察에 있어 重要な 資料가 되었을뿐 아니라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에 이와 같은 굽을 가진 柱頭를 實際 사용하였다는 事實을 立證해 주어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 柱頭的 資料로서는 華嚴經 經書의 佛殿圖에도 柱頭가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도 역시 曲線의 굽이 있고 雙峰寺 澈鑿禪師 浮屠나,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에도 모두 曲線홈을 가진 柱頭가 보이고 있어 統一新羅時代의 柱頭는 一般的으로 雁鳴池 出土의 柱頭나 同形의 것이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檐遮는 四點이 雁鳴池에서 出土되었는데 二點은 같은 種類이므로 모두 세가지의 檐遮가 나온 셈이다. 이중 檐遮例 一은(도9) 全長 九一, 八cm이고 高 二二, 九cm 幅 一四, 一cm인데 兩端은 翹頭形으로 四段접기 하



圖 1.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佛殿圖



圖 2. 雙峰寺 澈鑒禪師浮屠(部分)



圖 3. 石窟庵 雙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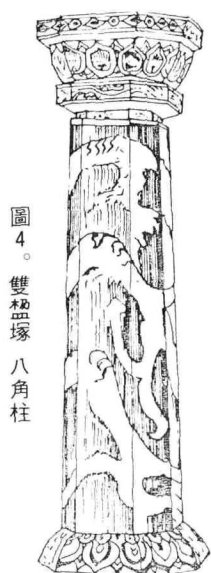


圖 4. 雙秘塚 八角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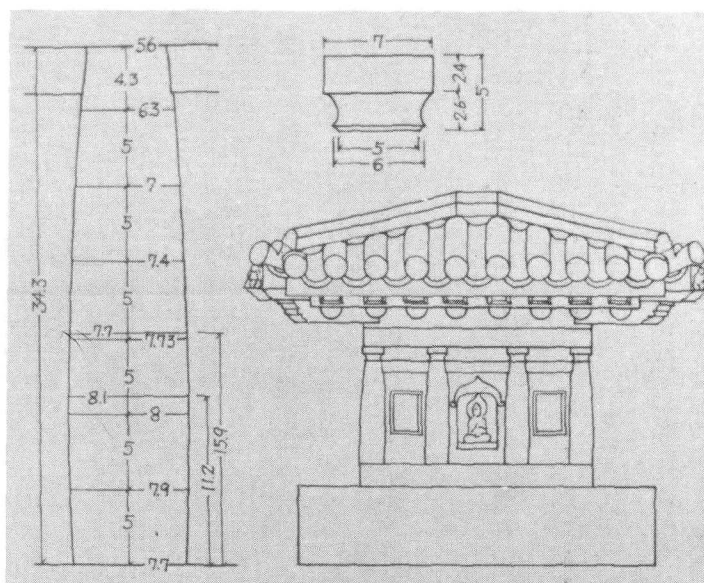


圖 5. 定興北齊石柱石屋



圖 6. 慈恩寺 大雁塔 門楣石刻 佛殿圖(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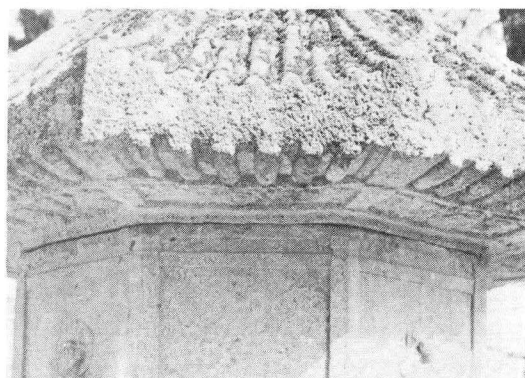


圖 7.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部分)

있고 中央 下部에 幅 一四、五 cm、高一〇、四 cm의 홈을 파서 앞을 정으로 하였으며, 檐遮 上面에는 一邊 一七、四 cm의 小累座를 中央과 兩端 各 한 개씩 세 개를 놓게 하였고 小累座 사이에는 曲面의 拱眼을 넣었다. 또한 小累座 中央에는 徑二、五 cm 深四、九 cm의 둥근 楸구멍이 파여져 있었다. 이 檐遮는 現存 木造建築의 多包系 拱包의 檐遮에서 많이 볼 수 있는 手法과 同一하다. 그러나 兩端 마구리 部分을 直角으로 잘라 험차게 四段으로 斜切한 것은 特徵的인 技法이며 마구리의 直切은 一 cm 까지 縮 내렸고 그곳으로부터 檐遮 下面까지의 斜切은 七、五 cm、六、五 cm、六 cm、六 cm의 크기로 차차 길이를 줄어가면서 잘라내었다. 檐遮例二는(도 10) 귀공포에 사용하였던 檐遮로 생각되는데 앞을 정으로 부터 한쪽은 缺損되었다. 앞을 정 위의 檐遮 마구리로부터 七、五、五 cm 되는 곳에 윗쪽으로 홈이 패여 있어 앞을 정의 귀檐遮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檐遮는 高二三、八 cm로 檐遮例一보다는 높고 마구리는 直切하고 翹頭形은 三段으로 斜切하였다. 마구리의 直切은 높이의 一/二을 넘게 내려 잘렸고 斜切된 翹頭形 部分은 傾斜面을 急하게 하였다. 上面에는 拱眼을 두었는데 拱眼의 斷面은 曲面이 아닌 直角의 모양으로 끊어내어 特殊하다. 또한 앞을 정 部分의 홈에는 三角形의 한턱이 있어 四五度角로 귀살미첨차가 交叉되었던 것 같다. 小累가 놓인 部分은 檐遮끝쪽 上面과 마구리로부터 五八、三 cm되는 下面部分의 두 곳이었는데 이 小累座에는 一邊 一八、二 cm의 홈집이 있는 것으로 보아 小累底邊의 크기가 一八、二 cm 程度이었음을 알 수 있다. 小累座에는 徑二、五 cm의 楸구멍이 뚫려 있었다.

檐遮例三의(도 11) 경우는 全長 一四一、五 cm、高二五 cm、幅 一四 cm였는데 中央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밑에서 윗쪽으로 他材가 끼워지도록 홈이 파여져 있어 앞을 정 檐遮임임을 알 수 있다. 이 檐遮는 귀拱包나 柱 上包에 사용하였던 檐遮인 것 같으며, 上面에는 小累座가 네 개 있고 下面에도 한 개의 小累 맞춤 痕跡이 보이고 있다. 上面에 있는 小累座의 間隔은 三七 cm、三七 cm、四九、六 cm로 一定치 않았고 下面의 앞을 정은 三七

cm 거리의 小累座 밑에 있었다. 小累座와 小累座 사이에는 曲面의 拱眼을 두었고 마구리 차름 手法은 兩端 모두 直切이고 마구리 下部는 三段 楹기의 斜切인데 마구리에서 斜切시킨 部分까지의 길이는 檐遮 높이의 一/二을 정확히 잡고 있다. 小累座에는 中央에 楸구멍이 파여져 있고 小累에 의해 놓인 痕跡을 보면 小累 底邊이 一八 cm 정도였던 것 같다. 이러한 檐遮는 現存 木造建築中에서는 浮石寺 祖師堂(一三七七年) 柱頭 위 檐遮에서 보이며 祖師堂의 경우에는 建物 內外로 넘겨지른 山彌檐遮로 사용되어 內部에서는 大樑을 받게 하였고 外部에서는 外目道里를 받도록 하였다. 日本 建築에서는 和樣의 建築樣式 귀공포 外部 檐遮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 中國建築의 경우에도 귀포첨차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이상 三種의 雁鴨池 出土 檐遮에서 나타난 特徵的 要素는 現存의 木造 建築中 柱心包 및 多包의 檐遮 形態와 같은 것이며 마구리는 直切하고 마구리 下面은 三乃至 四段의 斜切 形式을 취하고 있는 點이다.

佛國寺의 石築에도 檐遮石이 보이고 있다(도 12)。極樂殿 앞 蓮花七寶 橋左右 石築 中央部 石柱上에 檐遮石이 突出되어 있어 八世紀中葉의 木造 建築 檐遮를 연상케 해 준다. 이 첨차석은 마구리는 直切하고 下部는 圓弧로 둥굴려 曲線을 만들고 있어 雁鴨池 出土의 檐遮보다는 石材이면서 도 세련된 形態를 보여주고 있어 時代的으로 雁鴨池의 檐遮보다는 後代의 것으로 생각된다. 檐遮 上面 兩側에는 曲面의 拱眼이 彫刻되어 있고 그 앞쪽에는 小累를 올려 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 이 檐遮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原來는 簡單한 包材가 結構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時期에 造營된 石窟庵 前室에서도 檐遮石이 보인다(도 13)。이 檐遮石은 前室 東側과 西側의 八部衆神像 윗쪽에 얹혀져 蓋石을 받게 하였는데 佛國寺의 石築 檐遮石과는 달리 幅이 넓으며 拱眼이 없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側面에서 보면 마구리는 直切하고 마구리 下部는 圓弧로 둥글렸으며 全形이 多寶塔의 四天柱上의 二重 檐遮石 形態와 同一하다. 또 窟內 八角雙柱에도 檐遮石이 보이고 있으나 모두 八部衆神像 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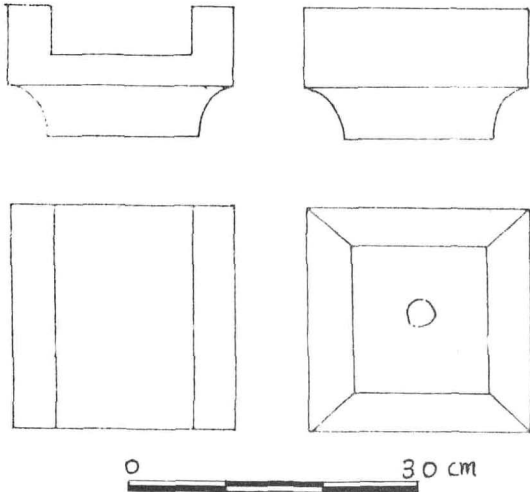


圖8. 雁鴨池 柱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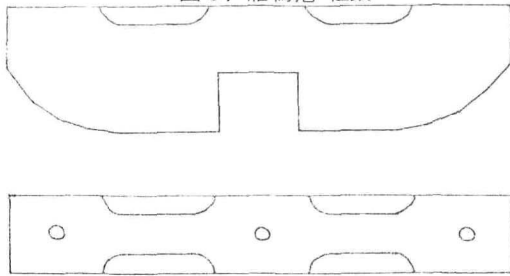


圖11. 雁鴨池 檐遮 例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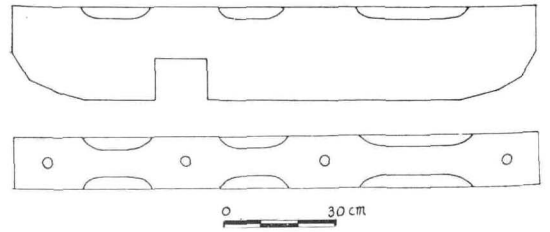


圖9. 雁鴨池 檐遮 例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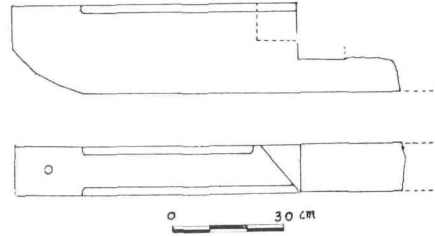


圖10. 雁鴨池 檐遮 例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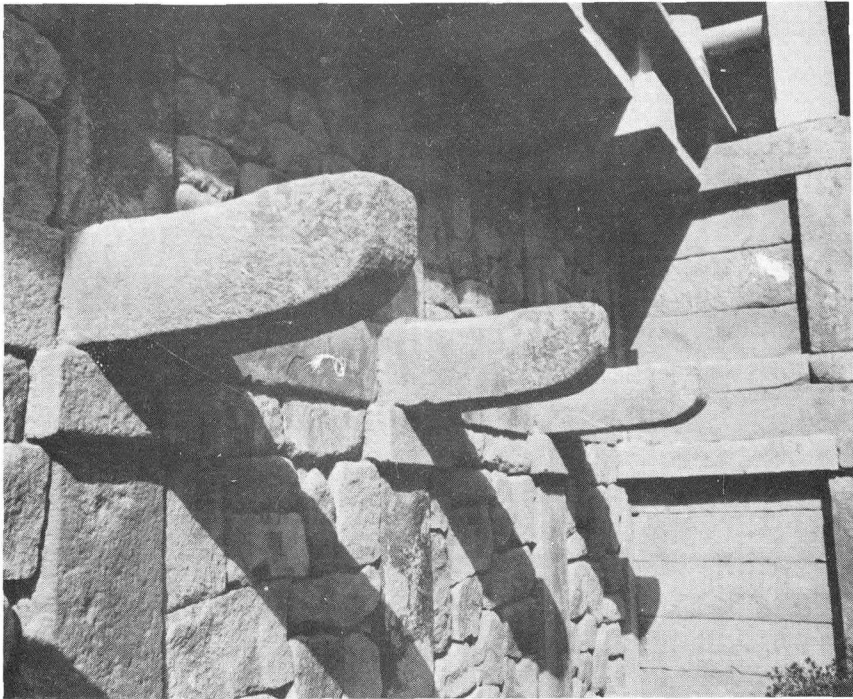


圖12. 佛國寺 石築の 檐遮石

檐遮石 同形을 이루고 있다.

華嚴經 經書에 보이는 栱包에서의 檐遮는 마구리가 斜切되고 下部도 모두 斜切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栱眼은 分明히 表現되어 있다. 雙峰寺 激鑿禪師浮屠의 檐遮形態도 마구리는 直切이며 下端은 圓弧로 굴러다.

小累는 實物이 發見되지 않아 實際의 모양은 알 수 없다. 그러나 雁鴨池에서 出土된 小累間壁이 唯一한 實證資料로 손꼽을 수 있다(도14). 이 間壁은 栱包에 사용하였던 小累間的 灰壁으로 小累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으로 小累間的 上部 側緣거리가 八、六cm이며 下部 側緣은 一七、二cm, 높이는 九、八cm이고 굽 높이는 五、七cm이다. 間壁의 높이는 九、八cm에 不過하지만 小累 原狀高는 좀더 높았을 것이다. 現存 間壁高는 이 間壁 兩側에 있는 小累가 받았던 他材의 下部바닥 線으로 보인다. 따라서 原狀의 小累 높이는 正確히 알 수 없으나 같은 곳에서 出土된 柱頭와 欄干小累들을 參考하여 算出하면 그 原狀 높이는 一六、一五cm 또는 一四、六cm로 된다. 그렇다면 現存의 間壁高보다 六三、五cm, 또는 四、八cm 더 높아야 되는데 全體 比率로 보아 後者の 四、八cm 쪽이 前者의 것 보다 좋은 比例를 갖는다. 이 間壁에서 보면 굽의 曲線은 強한 圓弧로 굴러다. 小累間壁의 外에는 小累形態를 알 수 있는 資料로서 雁鴨池의 欄干小累와 石造物의 佛國寺 欄干童子柱의 小累, 感恩寺의 欄干小累, 華嚴經經書의 栱包에 나타난 小累 등이 있어 그 形式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앞에서 言及한 柱頭의 形態와 同形의 것이었으며 若干 差異를 갖는 것은 感恩寺의 欄干小累로서(도15) 굽의 모양이 曲線도, 斜切形도 아닌 垂直形의 것이었다.

栱包材는 아니지만 栱包 위에서 道里와의 連結을 위해 長舌라는 部材를 栱包와 道里 사이에 끼워넣게 되는데 이 部材를 長舌라고 한다. 長舌에는 角材로서 柱心間을 곧바로 건너지르는 긴 長舌가 있고 檐遮모양으로 짧게 道里를 받쳐주는 짧은 長舌(短長舌라 함)가 있는데 우리나라 現存建築에서는 高麗時代의 柱心包 建物과 朝鮮初期의 柱心包 建物에서

만 볼 수 있는 部材이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의 長舌에 대한 資料는 全無하였는데 雁鴨池에서 一點 出土되어 當時 短長舌의 使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長舌는 全長 一七六cm, 高一六cm, 幅 一六cm의 것으로 兩端은 마구리를 直切하고 下端은 圓弧로 하였다. 短長舌 下面 中央部에는 長 二五cm의 小累痕跡이 있었으며 上面은 굽도리를 받을 수 있도록 둥글게 타내어 高麗期 短長舌에서 볼 수 있는 그대로의 形態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部材만으로 굽도리의 사용을 알 수 있으며 上面에 파여진 曲面의 圓弧로서 굽도리의 크기까지 알 수 있게 되었다. 短長舌는 唐代 建築인 南禪寺 大殿(七八二年)과 佛光寺 大殿(八五七年)에 나타나 있고 日本 建築인 奈良時代 木造建築에도 室生寺 五重塔, 當麻寺 西塔, 唐招提寺 金堂등에 보이고 있어 八、九世紀에 中國을 비롯 해 日本, 韓國 建築에 共通된 包部材의 一種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柱間裝置〉

柱間裝置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設置된 引枋, 窓戶, 壁體 등의 施設物인데 統一新羅時代의 柱間裝置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 眞相이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앞에 例示했던 여러 資料들을 檢討하면 大略의 內容을 把握할 수 있다.

引枋은 垂直으로 세워진 기둥과 기둥사이를 水平材로 서로 緊結시켜 주는 役割을 하는 部材인데 이 部材는 木造建築에서는 柱間裝置 部材로 重要な 部材이다. 引枋은 그 位置에 따라 下枋, 中枋, 昌枋, 平枋 등으로 나눌 수 있다. 下枋은 기둥뿌리쪽에 있고 中枋은 기둥몸 昌枋은 기둥머리 위에 올려 놓은 部材이다.

湖巖美術館 所藏 華嚴經 經書 建築圖에서는 下枋部分이 欄干에 가리워 보이지 않으며 기둥머리쪽에는 昌枋이 確然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을 자세히 檢討하면 斷面 長方形의 昌枋으로 보인다. 雙峰寺 激鑿禪師浮屠에서도 下枋과 昌枋이 浮彫되어 있고 柱枋까지 表現되어 實存의 柱心包系 木造建築과 크게 다른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實相寺의 百丈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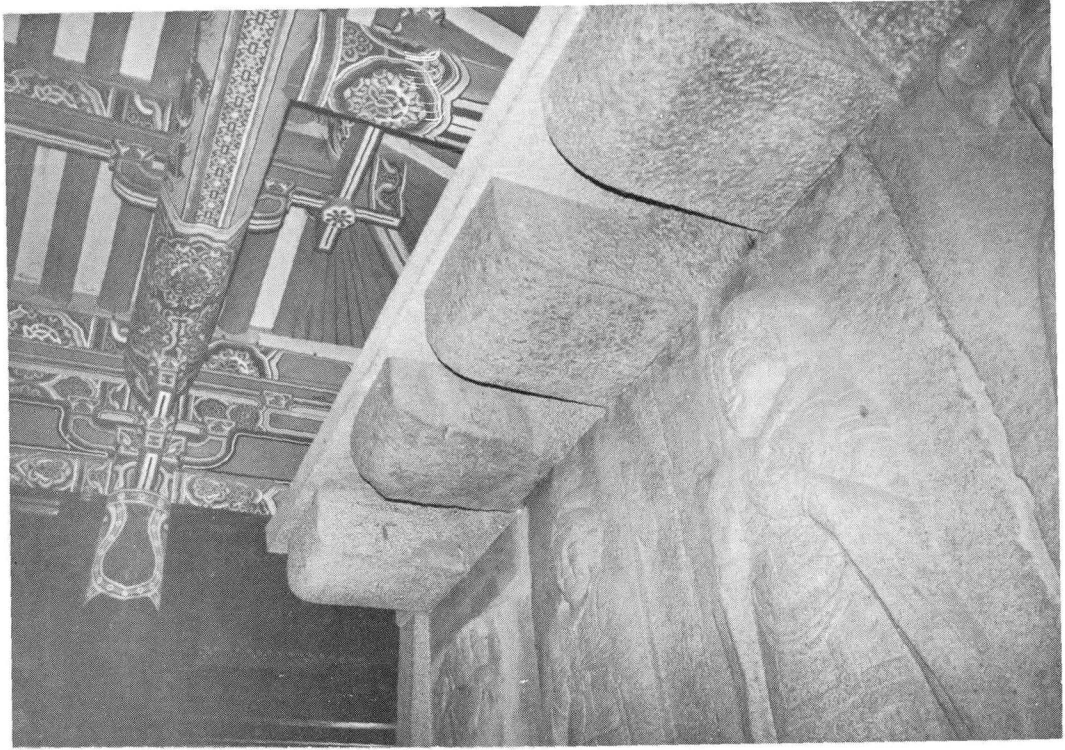


圖13. 石窟庵 前室의 檐遮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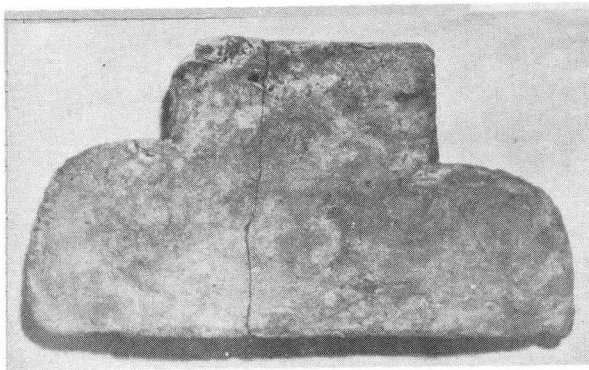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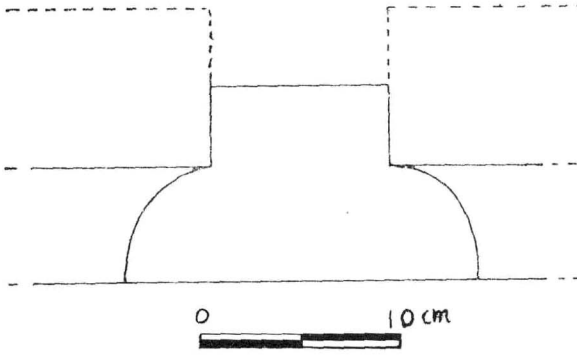


圖14. 小累間壁



圖15. 感恩寺 欄干小累

三層石塔에도 昌枋과 下枋이 보인다. 平枋은 多包系 建築樣式의 한 部材로 기둥머리 위에 올려 栱包를 받도록 한 部材인데 平枋에 該當되는 部材는 아직까지 發見된 바 없다.

窓戶에 대한 資料는 國立 慶州博物館 所藏의 蔚州郡 농서면 중산리 出土의 塼(도16) 側面에 나타난 家形浮彫에서 얻을 수 있고 統一新羅期 浮屠에 보이는 門扉 內容을 통해 알 수 있다<sup>12)</sup>.

이들 資料들을 보면 門扉는 모두 板門形式으로 두 窄門이고 門扉 주위에는 문틀을 둘러 門이 內部로 열리도록 表現되었으며 門 中央에는 문 고리를 달아 자물쇠로 잠그게 되어 있다. 窓의 表現은 蔚州郡 出土의 塼 側面 家形浮彫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來間에 對稱되게 살창을 두고 있다. 中央御間에는 역시 앞서 例示한 浮屠에서의 門扉와 같이 두 窄板門같은 表現이고 門과 窓의 높이 差를 두어 門은 높고 窓은 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中國의 경우에는 唐代의 建築인 南禪寺 大殿、佛光寺 大殿 등의 門扉에서 板門이 사용되었고 또 窓은 살창인 것을 알 수 있다. 日本 建築에서도 統一新羅期에 該當되는 奈良時代의 建築에는 大部分 板門과 살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 四、架構形式

架構는 建物內部에서 기둥이나 栱包 위에 얹혀져 內部空間 上部를 構成하고 있는 屋蓋의 틀과 같은 役割을 한다. 架構材의 基本이 되는 部材는 보를 비롯해 道里、臺工 등이며 이들 이외에 附屬된 여러 部材들이 다. 또 架構形式이라 함은 이들 部材들이 어떠한 結構方法으로 屋蓋의 틀을 만들고 있고 기둥이나 栱包와는 어떻게 이어지고 맞출려졌는가는 手法를 말한다.

統一新羅時代의 보나 도리, 그리고 대공 등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 具體的으로 어떠한 部材들이 存在하였는지 알 수 없

다. 그러나 中國이나 日本의 같은 年代에 該當되는 建物들의 架構內容과 先代 高句麗 壁畫古墳에 보이는 一部 部材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內容을 推察할 수 있다.

中國의 南禪寺 大殿의 架構內容을 보면(도17) 建物內部에 기둥이 없고 大殿이 前後面의 外陣平柱 사이를 가로질러 上部 荷重을 받도록 하였는데 大殿은 重疊樑으로 大殿 위에 別木의 덧보를 얹어 補強하고 있다. 大殿 위에 덧보(平樑)가 포개지도록 한 것은 樑間이 九、七六m나 되므로 上部 荷重支撐을 위해 취해진 것 같고 한편으로는 栱包의 짜임을 合理的으로 處理하기 위해 덧보形式을 취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大殿 위에는 四等分點上에 左右로 覆花盤을 올리고 그 위에 접시받침材 斗를 놓아 中道里를 받도록 하였다. 大殿 上部 宗樑은 접시받침材 斗 위에서 結構되고 宗樑 鰓목은 보이지 않는다. 宗樑 위에는 樑間 中心點에 얹은 覆花盤을 올리고 그 위에 童子柱 形式의 臺工을 세워 宗道里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 部材들은 一九七四年 重修 때 變更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sup>. 重修 때에 人字形 斗을 臺工이 直接 宗道里를 받게 하는 것이 復元的 次元에서 適當하다고 생각되었는지 宋代에 改造된 覆花盤과 童子柱 臺工은 자취를 감추었다.

佛光寺의 大殿(八五七年)은 建物內部에 內陣柱를 세우고 外陣柱와는 退樑으로 連結하고 內陣柱間은 大殿으로 건너질러 各各 內陣空間과 外陣空間을 形成하고 있다(도18) 이 建物內部的 架構特徵은 高麗 以後 우리나라 木造建物에서 볼 수 있는 空間構成과 다른 것이, 內陣에 高柱를 사용하지 않고 外陣柱의 높이와 同一한 內陣柱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內陣柱 上部에는 栱包를 짜야 했고 栱包는 偷心造이어야만 되었다. 天井은 南禪寺 大殿과는 달리 仄입天井으로 斷面形이 梯形이고 빗天井과 우물天井을 結合시킨 形式이며 內陣은 높고 外陣은 낮게 시설하였다. 天井上部는 內外陣 모두 天井 板에 가리워지므로 意識的으로 構造的 機能에만 充實하여 裝飾的 要素가 없이 原木을 簡單히 治木하여 結構시킨 흔적이 역연하다. 특히 天井內部 架構材中 斗을 臺工(人字形 臺工)과 包

臺工의 祖形인 벼개木, 집시받침斗, 長舌, 小累의 構成은 注目하여야 될部分이다.

日本の 建物중 六七〇年頃 再建된 奈良 法隆寺 金堂의 경우(도19) 外陣柱와 內陣柱가 같은 높이로 되고 內陣柱 사이에는 大櫓를 걸지 않은 것이 特徵的이며 天井은 斷面形이 梯形인 빗天井과 우물天井의 結合形으로 中國 佛光寺 大殿의 天井形式과 同形이다. 唐招提寺의 金堂(七七〇年頃은(도20) 內部에 高柱를 사용하고 있어 法隆寺의 金堂이나 佛光寺 大殿과는 架構手法이 다르다. 그러나 內陣高柱 사이에 大櫓를 걸치고 大櫓과 高柱 사이에는 偷心造의 栱包를 짜올린 것은 佛光寺 大殿과 同一手法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中國이나 日本의 建築을 통하여 統一新羅時代의 架構內容을 推察해 볼 때 이들 二國의 建築 架構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外陣平柱와 內陣柱는 그 높이가 同一한 것과 同一하지 않고 內陣柱가 더 높은 경우의 두 種類가 共存하였을 可能性이 있으며 大櫓과 退櫓은 存在하였고 宗櫓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不明하다. 宗櫓은 天井施設에 따라 그 內容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天井有無, 即연등 天井이나, 裝飾天井이나에 따라 內部架構 內容이 差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外陣과 內陣의 기둥을 同高로 한 경우는 中國 木造建築중 晚唐의 佛光寺 大殿과 遼의 獨樂寺 觀音閣(九八四年), 下華嚴寺 薄伽經藏殿(一〇三八年)등이 있으며 그 以後의 建物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日本 建築중 一五世紀初에 再建된 奈良 興福寺 東金堂(一四一五年)이 內外陣柱 높이가 같으며 天井構成은 佛光寺 大殿과 같다. 따라서 興福寺 東金堂은 八世紀初 創建時의 內部構成을 그대로 踏襲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6)</sup>.

## 五、屋 蓋

屋蓋는 建物에서 重要な 役割을 한다. 빛을 막고 日射를 避하게 하며 室溫을 조절해 주는 機能을 갖고 있으며 外觀上으로는 建築物의 意匠의 역할까지도 한다. 屋蓋의 類型은 크게 세가지로 分類하고 이를 세가지 지붕이 複合하여 여러가지 屋蓋形態를 만들게 하고 있다. 세가지의 屋蓋類型은 맞배형, 우진각형, 팔작형인데 이를 세 類型은 그 歷史가 길다.

### 〈맞배형屋蓋〉

이 지붕형식은 中國建築의 경우 漢代古墳에서 出土되는 가장 簡單한 明器에 그 例가 많고 畫像중에는 그 例가 하나도 없어 우진각형지붕이나 팔작형지붕에 比하면 下位에 속했던 建物지붕의 형식인 것 같다. 遺構로서 남아있는 것은 孝堂山石室(BC 一二九) 一例가 있고 六朝石窟寺중에서도 佛殿을 나타낸 建物중에 맞배지붕의 例는 보이지 않으나 龍門第十三洞右壁의 維摩經變相 文殊菩薩이 浮彫된 屋蓋에 맞배지붕의 手法이라 생각되는 지붕이 보일 程度이다. 唐代의 建物遺構중에는 아직까지 맞배형 지붕은 없으나 日本 奈良時代의 建物중에는 比較的 많은 맞배지붕을 볼 수 있다. 即 東大寺 轉害門, 法隆寺 東大門, 法隆寺 經藏, 食堂, 海龍王寺 金堂등의 建物에서 볼 수 있는데 海龍王寺 金堂을 제외하고는 大部分 寺院중 附屬 建物들에 보이고 있어 格이 낮은 建物에 많이 사용된 듯하다. 따라서 統一新羅時代의 맞배지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具體的인 資料가 없어 알 수 없으나 周邊 二國 및 伽耶時代, 高句麗時代 지붕 資料중 맞배형 지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맞배지붕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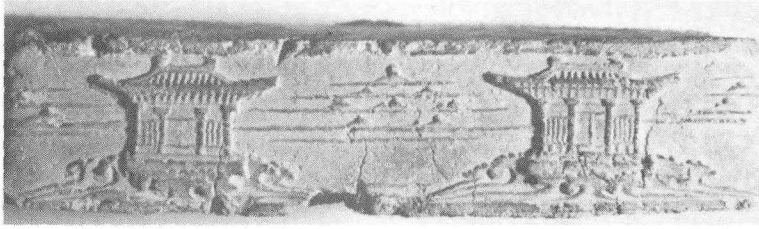


圖16. 蔚州郡 농서면 중산리 出土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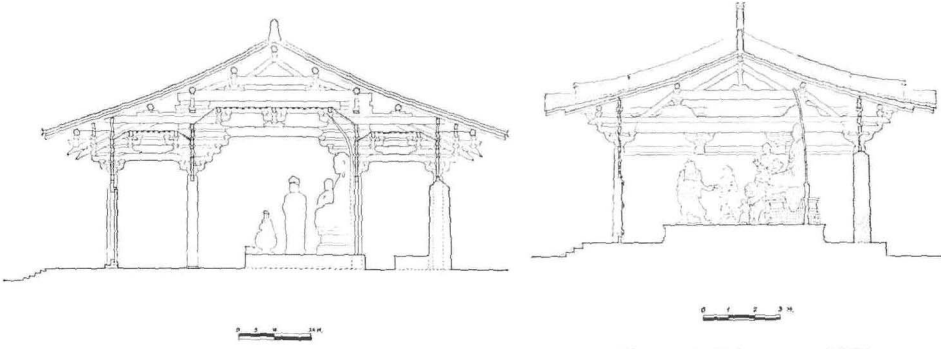


圖17. 南禪寺 大殿 断面

圖18. 佛光寺 大殿 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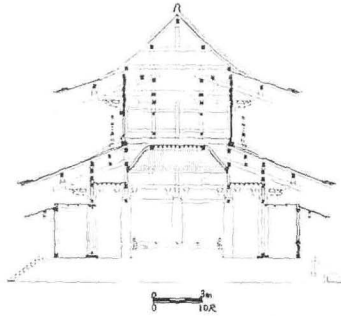


圖19. 法隆寺 金堂 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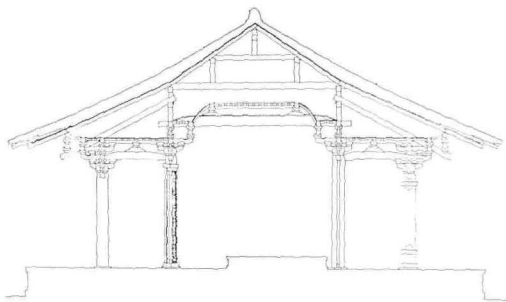


圖20. 唐招提寺 金堂 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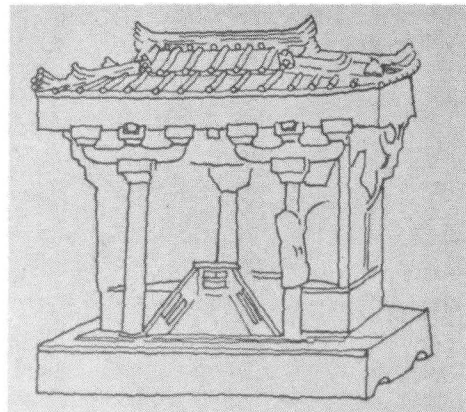


圖21. 牧馬山 後漢十號岩墓陶屋

### 〈우진각형 屋蓋〉

우진각지붕은 資料중 가장 많이 그 예가 보이는 지붕형식이다. 湖巖美術館의 華嚴經 經書에도 우진각지붕이 보이며, 蔚州郡 出土 博, 國立慶州博物館 家文博 등의 지붕이 모두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우진각형 지붕은 統一新羅以前부터 많이 사용된 지붕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高句麗의 壁書古墳에 나타난 建築圖에 의하면 大部分의 지붕이 우진각지붕을 나타내고 있고 中國의 경우에는 漢代로부터 시작하여 唐代에 現存 建築으로 佛光寺 大殿(八五七年)이 있고 慈恩寺 大雁塔 門楣石佛殿圖(七〇四年)에도 屋蓋가 우진각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唐代에는 우진각지붕이 唐令(七三七年)으로 「宮殿皆四阿(우진각지붕)施鷓屋」이라 되어 있어 우진각형 지붕이 建築중 最高級에 속하는 지붕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日本 建築중에는 奈良時代의 唐招提寺 金堂, 東大寺 三月堂의 二例가 있다. 이렇게 周邊國의 狀況이나 統一新羅期의 資料들을 통해 우진각지붕은 統一新羅時代에 屢연히 存在하였고 最上級 建築에 使用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 〈팔각형 屋蓋〉

지붕형식중 가장 호화롭게 보이는 지붕형식인데 統一新羅때에 이 형식의 지붕은 있었을 것으로 確信된다. 팔각형 지붕의 출현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漢代의 明器<sup>19)</sup>와 四川牧馬山灌漑渠後漢十號墓出土例<sup>20)</sup>이며(도21) 六朝時代의 것으로는 龍門石窟古陽洞右壁 第二層의 佛彫龕室(五二〇年代頃)이 있으며(도22) 年代가 確實한 例로는 西魏大統四年 및 同五年(五三八年, 五三九年)의 紀年銘이 있는 敦煌二八五窟南壁의 五百盲賊故事圖중 宮殿이<sup>21)</sup> 있고 北齊武平三年 佛時寺四面造像碑(五七二年)가 알려져 있다. 또 敦煌莫高窟北朝壁畫중 建築圖의 調査結果에 의하면<sup>22)</sup> 팔각지붕형식은 北周(五五六年~五八一年)에 그 例가 大量으로 나타나고 그 形式은 一般的인 팔각형과 꺾임팔각형<sup>23)</sup> 二種이 있다고 報

告되어 있다. 이 외에 北朝末의 麥積山石窟七佛閣 우물天井圖의 팔각지붕을 例로 들 수 있다<sup>24)</sup>.

이상과 같이 中國 建築의 경우 팔각지붕의 遺物上 檢討를 통해 그 흐름을 보면 後漢으로부터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던 팔각지붕형식이 六世紀後半부터 차차 그 사용처가 많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5)</sup>.

唐代 建築으로 팔각지붕을 가진 現存하는 遺構는 五臺山 南禪寺 大殿이다. 이 建物은 唐 建中三年(七八二年) 建立된 小規模의 佛殿으로 一〇八六年 및 一三四三年 등 重修 記錄이 있고 建立後 여러 차례의 變更된 部分이 있었던 事實이 一九七四年 大修埋를 행하면서 發見하였다고 하며 變更部位는 다시 復元시켰다고 한다. 이 復元된 內容을 보면 지붕이 팔각지붕이며 용마루에는 鷓尾까지 올려 裝飾하고 있다<sup>26)</sup>.

또한 敦煌 第一四八窟 및 第一七二窟 第二一七窟의 壁畫중 唐代佛寺에 主殿아닌 附屬建物에 팔각지붕 建物이 많이 보이며<sup>27)</sup>(도23) 住宅 그 림에서도 팔각지붕 建物이 보인다<sup>28)</sup>(도24).

統一新羅時代의 팔각지붕 例는 唯一하게 家形土器 一點이 있는데 이 遺物은 屢연히 팔각지붕 형태를 나타내고 평기와 및 막새기와 모양까지 나타나고 있어 統一新羅時代의 지붕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sup>29)</sup>(도25).

### 〈椽木 및 浮椽〉

統一新羅期의 椽木과 浮椽 實物은 雁鴨池에서 出土된 바 있다<sup>30)</sup>. 椽木은 二點, 浮椽은 四~五點분이 出土되었는데 二點의 椽木은 앞쪽은 比較的 잘 남아있었으나 뒷쪽은 모두 缺損되었다. 椽木 例一은 椽端直徑이 一一, 四cm였고 뒷쪽으로 가면서 차차 굵어져 椽端에서 四一cm 되는 곳의 直徑이 一一, 一cm가 되었다. 椽端部의 자름手法은 直角의 直角方 向으로 切斷하였다. 椽端上部에는 釘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部分的으로 朱漆이 보였다. 殘有 全長은 七七cm였다. 椽木 例二는(도26) 平交臺, 浮椽등과 함께 出土되었는데 殘有 全長은 六五, 二cm로 앞쪽 直徑이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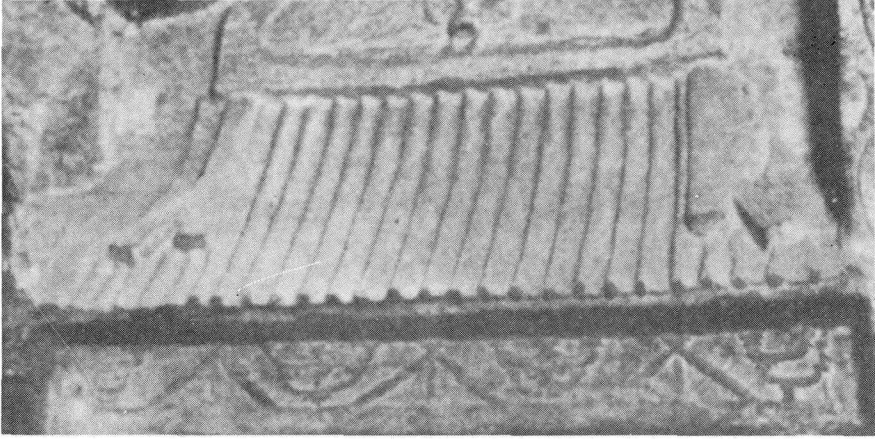


圖22. 龍門石窟古陽洞佛殿形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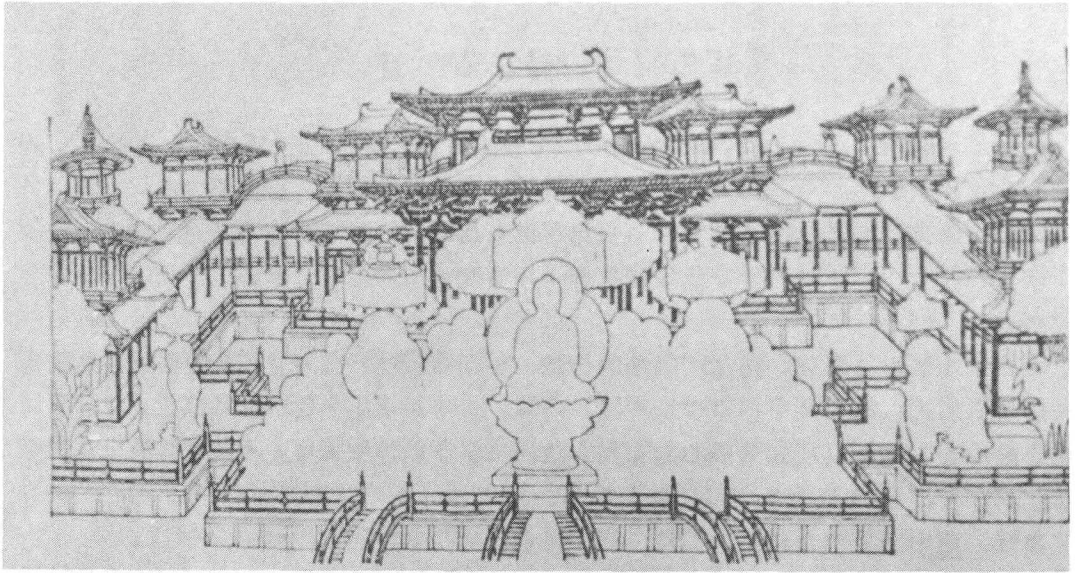


圖23. 敦煌第一四八窟壁畫의 唐代佛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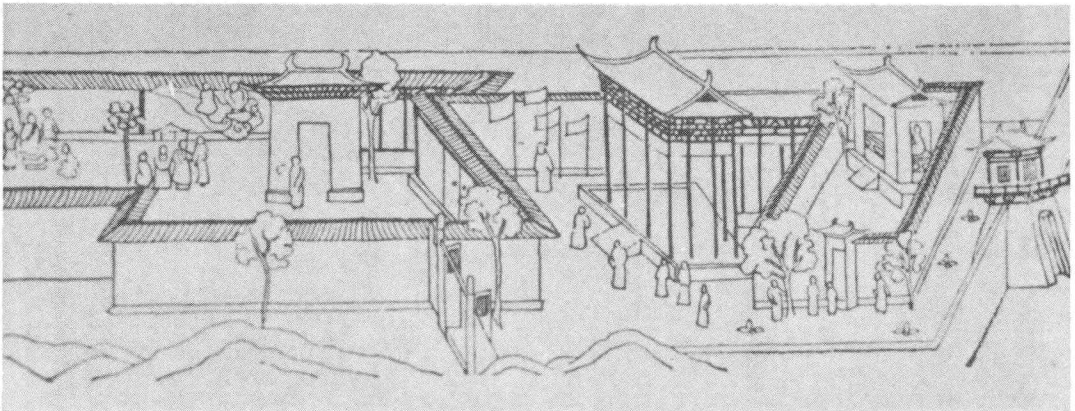


圖24. 敦煌壁畫의 唐代住宅

一、八 cm였고 뒤쪽으로 가면서 차차 굽어져 椽端에서 三五 cm 되는 곳이 直徑 一一、五 cm였다. 그런데 앞쪽 뒷쪽에는 平交臺를 놓을 수 있도록 홈집을 내어 平交臺座를 만들었다. 이상의 椽木二點을 보면 椽木 굽기는 收縮을若干 인정한다해도 小規模 建物の 椽木으로 보이며 앞쪽을 흘치기한 것이라던지 平交臺座를 만든 것이 注目된다.

浮椽은 四(五點)분이었는데 二點이 代表的인 것이었다. 浮椽例一은(도 27) 全長 七〇 cm의 것이었는데 앞쪽에서 六一 cm 되는 곳에 平交臺턱에 걸 리도록 약간 과내었으며 앞쪽 높이 一一、五 cm, 뒷쪽 높이 一五、二 cm로 앞쪽 바닥면에서 뒷쪽쪽으로 傾斜지게 깎아내어 흘치기하였다. 幅은 높이보다 약간 작게 하였고 幅도 앞쪽에서 뒷쪽쪽으로 차차 넓게하였다. 또한 앞쪽 마구리는 上面에서 垂直으로 잘라내었다. 浮椽例二는 浮椽例一과 同形인데 扇子用 浮椽이었다. 全長 一一五、五 cm 高七、五 cm, 幅八、六 cm의 크기인데 前端에서 四九、五 cm 되는 거리에 三 cm 높이의 턱이 傾斜角으로 과여져 있다. 浮椽 前端은 高 幅이 똑같은 五、二 cm의 方形이었고 浮椽例一과 같이 앞쪽에서 뒷쪽쪽으로 흘치기하였다. 平交臺位置에는 길이 二二、五 cm의 方頭釘이 박혀있어 組立後 緊結釘을 박았던 것이 確認되었다.

### 〈平交臺와 椽舎〉

平交臺 및 椽舎材의 實物은 앞의 椽木이나 浮椽과 같이 雁鴨池에서 出土되었다. 平交臺(초막이)는 椽木 위에 얹혀 浮椽을 받는 部材인데 平交臺例一(초막이)은 초막이와 浮椽막이를 一材로 만들어 浮椽이 초막이 위에 끼워지도록 하였다. 초막이 운두는 一三 cm, 幅 一四、八 cm인데 뒷쪽을 경사지게 잘라 椽舎 뒷쪽 處理技法과 같게 하였으며 浮椽이 앉을 곳은 턱을 두어 뒷쪽으로 浮椽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홈은 뒷쪽으로 가면서 넓어져 浮椽이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턱의 높이는 一段이 三 cm, 二段도 三 cm로 하여 결국 초막이 높이를 六 cm로 하여 總高의 一/二程度로 잡았고 홈의 幅은 앞쪽이 九、三 cm 뒷쪽이 一一、

九 cm이며, 浮椽 心心距離는 二六、五 cm이다. 이 초막이의 모양은 現存 木造建築에서는 아직 發見例가 없는 特殊形이다. 高麗時代 建物인 鳳停寺 極樂殿의 경우에는 초막이와 浮椽막이가 一材로 되었으나 턱이 없고 細部技法이 다르다. 홈 한곳에는 椽木에 박혔던 方頭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釘의 길이는 一三、七 cm였고 椽木으로 八 cm 程度 박혀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막이例二는 例一과 같은 形式의 部材인데 若干작다. 과여진 홈의 크기는 幅이 八、六 cm이고, 높이는 七 cm이며 홈의 一段턱 높이는 二、七 cm, 二段턱은 一、四 cm로 되었고 홈의 간격은 二七、五 cm로 浮椽이 떨어진 距離를 이 간격으로 알 수 있다. 이 초막이에는 두개의 홈에 方頭釘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초막이 下面에는 部分的으로 朱漆한 痕跡이 보였다. 例三은 例一、二와 같은 形式의 것이지만 扇子椽이 있던 곳에 使用되었던 것이다. 全長 一一〇 cm 程度인데 浮椽 配置 홈이 다섯군데 있고 높이는 一一 cm 幅은 一五、八 cm의 部材이다. 浮椽座 홈은 右側으로 가면서 점점 傾斜를 이루어 扇子浮椽의 配列을 把握할 수 있게 되었다. 막장 浮椽쪽에서 초장 浮椽쪽으로서의 浮椽 心心距離는 二四、九五 cm, 二三、七五 cm, 二二 cm인데 數値로 보아 차차 浮椽距離를 좁혀감을 알 수 있다. 이 距離는 초막이 위에서서의 浮椽間 距離이므로 浮椽 앞쪽과의 距離와는 相違할 것이지만 차마길이, 扇子浮椽 施工法 등을 把握하는데 貴重한 資料이다.

平交臺(초막이)例四는 浮椽 앞쪽 위에 얹혔던 平交臺로 浮椽과 椽舎에 박혔던 못의 痕跡이 남아있었다. 全長 一八二 cm, 높이 六 cm, 幅 一四인데 上面 椽舎이 놓였던 位置에는 八 cm 크기의 幅으로 水平 다듬질 되었고, 뒷쪽은 적당히 경사지게 깎아 내었다. 浮椽에 박혔던 못의 位置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平均 二七 cm에서 二九 cm 内外였다.

椽舎은 浮椽, 平交臺와 함께 雁鴨池 護岸周邊 建物址 밑 못 속에서 出土되었다. 形式은 現存 木造建築에 사용되고 있는 椽舎과 같은 手法의 것으로 高七、五 cm 幅二、二 cm의 木材를 간격 三〇 cm로 女瓦가 얹혀지도록 曲面으로 瓦座를 만들고 曲面 瓦座 中央에는 이백이에 附着시키기

위한 못을 막은 痕跡이 남아 있었다.

雁鴨池 出土인 椽木、浮椽、平交臺、椽舍外에 椽木이나 浮椽 등의 內容을 파악할 수 있는 資料로서는 湖巖美術館藏 新羅 華嚴經 經畫의 佛殿圖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栱包 위에 椽木과 浮椽이 表現되어 있다. 그러나 椽木이 圓形인지 方形인지 분명치 않으며 浮椽 역시 그 內容把握이 어렵다. 그러나 栝치마(椽木과 浮椽이 있는 栝치마)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그림 內容을 보면 椽木과 浮椽이 春舌쪽으로 가면서 부채살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 이것은 扇子椽의 表示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石造物중 浮屠에 나타난 栝치마形式을 보면 栝치마로 된 것과는 栝치마로 된 것 二種이 있고 春舌등이 나타나고 있어 現存 木造建築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石造에 나타난 栝치마에는 角形 二重椽 치마가 있어<sup>㉑</sup> 椽木을 角形으로 사용하였던 木造建築이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角形 椽木의 경우는 六七〇年頃 再建된 日本의 法隆寺 金堂이 그 예로 남아 있으며 八世紀初 以後의 建物에는 角形 椽木이 많이 流行되었다. 唐代의 建物에서는 椽木은 圓形이고 浮椽은 角形으로 하는 것이 正規의 形式이었다. 日本 建築중에도 最高級格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진 藥師寺東塔이나 唐招提寺 金堂은 唐式을 그대로 踏襲하여 椽木은 圓形이고 浮椽은 角形으로 되었다고 한다<sup>㉒</sup>. 慈恩寺 大雁塔 門楣 石刻의 佛殿圖(七〇四年)에도 椽木은 圓形이고 浮椽은 角形으로 되었고 南禪寺 大殿(七八二年)과 佛光寺 大殿(八五七年) 두 建物은 모두 大雁塔 佛殿圖 椽木이나 浮椽과 같다.

## 六、建築裝飾

建物에는 實用的인 目的이나 裝飾的인 目的 등으로 여러가지 施設物이 附加되어 진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欄干이다. 統一新羅時代의 欄干 관계의 資料는 어느 建築資料보다 具體的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sup>㉓</sup>. 그 實例로는 全北 南原郡 所在의 實相

寺 百丈庵의 石燈과 三層石塔의 欄干 彫刻과 慶北 月城郡 所在 感恩寺 址의 西三層石塔 內部에서 一九五九年 發見된 欄干 石材가 있고, 慶北漆谷郡 松林寺 五層塔塔속에서 發見된 舍利器의 基壇周邊에 돌린 欄干(도 28)、忠南 燕岐郡 所在 碑岩寺의 己丑銘 阿彌陀如來 諸佛菩薩石像에 보이는 欄干(도 29)、그리고 雁鴨池 出土 建築部材중의 實物 欄干材들이 있다. 위의 欄干 관계 實例들은 모두 童子柱를 세우고 그 童子柱 사이 空間을 가로와 세로로 살대를 세워 特色있는 文樣으로 構成하였는데 日本의 경우에는 卍組子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 文樣에 대한 名稱이 없다. 이 特色있는 欄干 文樣은 中國 및 日本 建築의 欄干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中國의 경우에는 古例가 北魏雲崗石窟第九洞과(도 30) 第十洞、第十三洞의 것, 그리고 敦煌莫高窟의 西魏大統四年 및 五年(五三八、五三九年) 銘二八五洞南壁의 殿堂圖에 類例가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sup>㉔</sup>. 唐代의 것으로는 李壽墓壁畫 重層建築(六三一年)、永泰公主墓壁畫 單臺臺基上(七〇六年)、韋洞墓殿堂圖臺基上(七〇八年)、八世紀末頃の 四川樂山龍泓寺 및 凌雲寺 摩崖變相浮彫에서 볼 수 있다<sup>㉕</sup>. 日本 建築중에는 法隆寺 金堂(六七〇年頃)을 비롯하여 五重塔、中門、東大寺 法華堂 本尊臺座에 古例가 있고 後代의 것으로는 鎌倉時代의 西明寺 本堂 佛壇에서 볼 수 있다.

中國 및 日本, 그리고 統一新羅時代의 이 欄干 文樣을 통해 보면 中國은 六世紀 이후 欄干의 意匠 文樣으로 所謂 卍組 文樣이 流行되었고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에는 七世紀末부터 많이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 高麗 때의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統一新羅時代에만 流行되었던 欄干 文樣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日本에서 的 鎌倉時代 및 江戸時代의 類例, 그리고 中國도 清代에까지 이 遺例가 보이는 것을 보면 韓國 建築에서만 일찍이 文樣이 消滅된 것 같다.

卍組 文樣 欄干의 외에는 童子柱를 세우고 童子柱 사이에 栝치마를 끼우고, 童子柱 머리에는 欄干 小累를 얹어 돌란대를 돌린 形式이 新羅 華嚴經經畫에 보이며 雁鴨池에서도 欄干 小累 實物이 發見되고 感恩寺 址의

石欄干 童子柱、佛國寺 大石壇 童子柱 등을 보면 欄干形式은 크게 두 가지 類型이 많이 使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金 具〉

建築金具는 實物資料가 一九七五年 慶州 雁鴨池 發掘時 연못內에서 多數 發見되어 그 眞相을 알게 되었다. 雁鴨池에서 出土된 金具는 金銅 製 문고리 및 建築部材 裝飾具(昌枋마구리 裝飾、欄干 돌판대 裝飾 등) 들로서(도31) 部材의 끝부분이나 이음 部位를 감추도록 한 裝飾들인데 이들 裝飾具들은 모두 花紋을 아름답게 文樣化하여 透彫된 形態를 취하고 있어 外觀上 金빛 찬란한 모양으로 나타나 建物自體를 한층 더 장엄하게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大門의 板材나 窓戶틀에 달렸던 것으로 생각되는 花紋裝飾 문고리와, 鬼面의 문고리, 또 이음새를 가리게 한 띠쇠들과 못 머리를 감추기 위한 半球形 장식들은 當時의 建築金具를 理解하는데 重要한 資料들이라 말할 수 있다<sup>⑥</sup>.

『三國史記』屋舍條에 보면 眞骨 以下の 階級層에서는 집에 金銀·鍮石 등으로 꾸미지 못하도록 規制하고 있어<sup>⑦</sup> 雁鴨池 周邊의 建物들은 眞骨 以上の 階級層이 生活했던 殿堂이었고 當時 最高級 水準의 建物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丹 靑〉

丹青에 관한 이렇다 할만한 資料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雁鴨池에서 石間朱가 담겨진 土器가 發見되었고 木部材 및 平瓦片에서 朱漆痕跡을 볼 수 있어 朱漆된 部材는 틀림없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기타의 丹青紋樣이나 顏料의 種類를 알 수 있는 資料는 發見 例가 없다.

그러나 文獻資料에 의하면 「彩帛」로 절을 꾸미고 풀로 五方의 神像을 만들고……」<sup>⑧</sup>가 있고 丹青에 대한 것으로는 眞骨 以下の 階級에는

「五彩로 꾸미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sup>⑨</sup>. 이러한 資料들을 통해 推察컨데 統一新羅期에는 丹青다운 丹青이 嚴然히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其他 裝飾材〉

建物の 意匠材로는 여러가지 裝飾材가 建物 内外부에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具體的인 것은 알 수 없고 다만 『三國史記』卷第三十三 屋舍條의 記錄을 보면 「不複唐瓦 不施飛簷、不雕懸魚、不置獸頭、不施藻井」 등의 建築用語가 보인다. 이들은 建物の 構造材가 아니라 意匠材들인데 唐瓦는 막새기와이며 飛簷은 浮椽이며 懸魚는 建物の 지방 側面 合閣의 꼭지점에 부착되는 물고기 모양의 彫刻이고 獸頭는 지방 위에 올라가는 各種 裝飾瓦이며 藻井은 연등天井이 아닌 우물天井이나 빗天井이었을 것이다. 이 記錄을 보면 이들 意匠材가 當時 高級 建物에 使用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意匠材는 階級이 眞骨 以上이 되어야 갖추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用語들을 通해 알 수 있는 것은 現存의 木造建築 遺構에서 볼 수 있는 意匠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當時의 建築物이 現存의 木造建築과 根本的으로 다르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

## 七, 結

이상에서 統一新羅時代의 概略的인 木造建築 樣式을 살펴 보았다. 이를 簡單히 整理하여 끝맺음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平面은 方形과 長方形이 主流였으며 塔을 除外하고는 長方形 一色임을 알 수 있다.
- (2) 柱間은 正面의 경우 奇數間이 많았고 側面은 奇數間과 偶數間 모두 使用하였다.
- (3) 建物內部에는 內陣間을 둔 것이 많다.

(4) 『三國史記』卷第三十三의 屋舍條를 보면 「三尺」이 平面의 基本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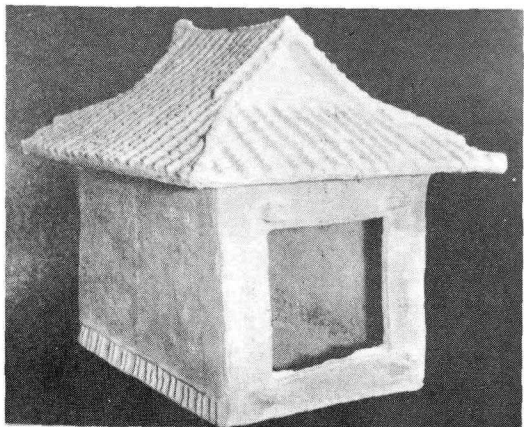


圖25.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家形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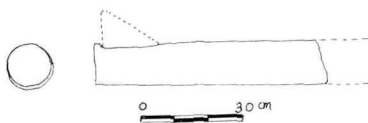


圖26. 雁鴨池 椽木 例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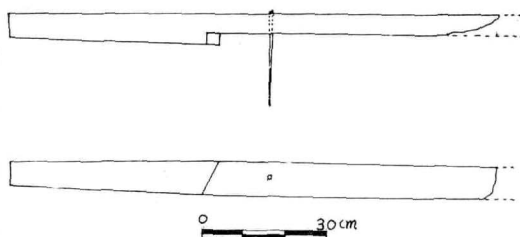


圖27. 雁鴨池 浮椽 例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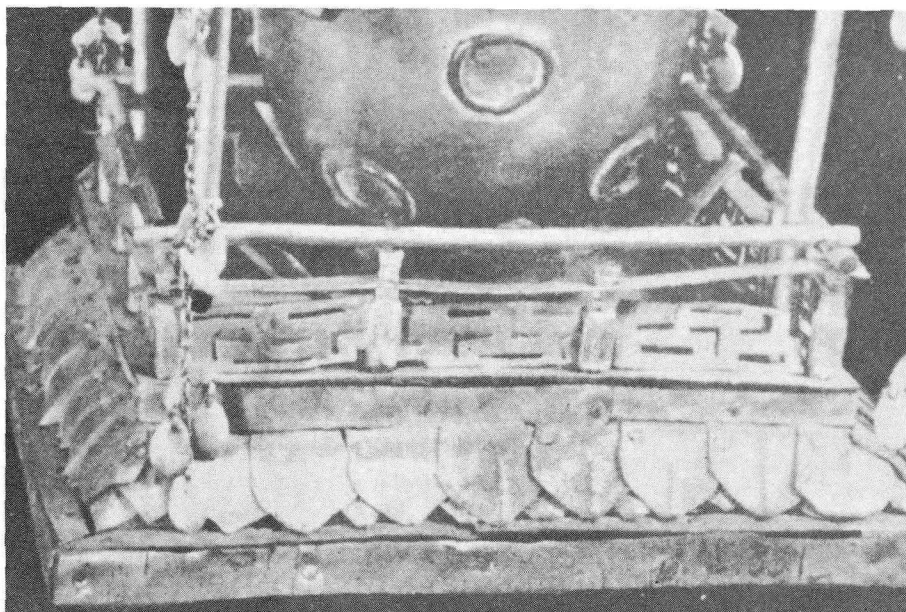


圖28. 松林寺 王層磚塔內 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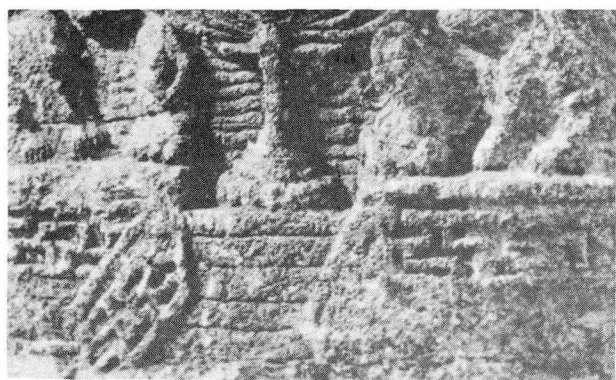


圖29. 碑岩寺 己丑銘 石像 下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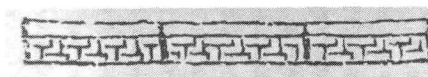


圖30. 山西省大同雲岡九窟

尺(Module)이었다.

- (5) 기둥은 圓柱가 主流를 이루었으며 八角柱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 (6) 기둥에는 배흘림이 있었고 민흘림도 있었던 것 같다.
- (7) 기둥머리는 둥굴린 것 바로 수평으로 짧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 (8) 拱包는 柱心包式이 主流였고 柱間에는 人字形臺工이나 童子臺工이 있었을 가능성도 많다.

(9) 柱頭·小累는 굽이 曲面으로 되었다.

(10) 檐遮는 翹頭形이 大部分이고 마무리 下端은 斜切과 圓弧로 굴린 二種이었다.

(11) 檐遮 上部에는 拱眼이 있었고 小累를 놓을 位置에는 軸을 끼우기 위한 구멍이 있었다.

(12) 拱包에는 出目이 있고 끝 出目에는 行工檐遮와 短長舌가 있었다.

(13) 昌枋과 柱植이 있었으며 窓戶의 살은 세로 살창이 가장 많았던 것 같다.

(14) 架構材는 확실하지 않으나 大樑과 退樑이 있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15) 天井은 우물天井型이 있었을 것이며 斷面 梯形的인 天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16) 지붕은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등이 있었다.

(17) 椽木은 斷面이 圓形인 것이 많았을 것이며 浮椽은 矩形이었다.

(18) 扇子椽이 있었다.

(19) 초막이, 이막이, 연함등이 있었고 특히 초막이는 평교대와 부연막이가 一木으로 되었다.

(20) 欄干은 亘崩文樣이 主流였고 그외에는 欄干 童子柱를 세워 그사이를 簾판으로 막음하고 돌란대를 돌린 형식이 있었다.

(21) 建築金具는 호화로운 것이 많았으며 그 實例는 雁鴨池 遺物에서 볼 수 있다.

(22) 丹青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어떠한 文樣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23) 懸魚, 獸頭 등으로 建物を 莊嚴하게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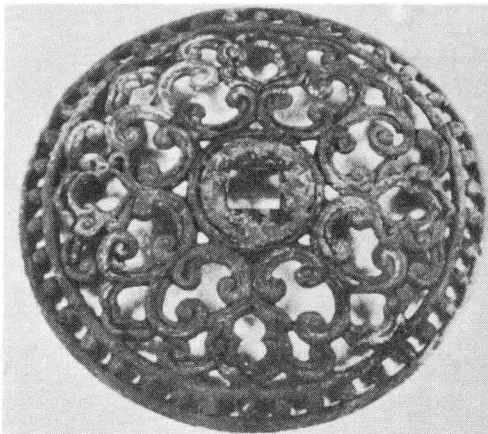


圖31-① 문고리 裝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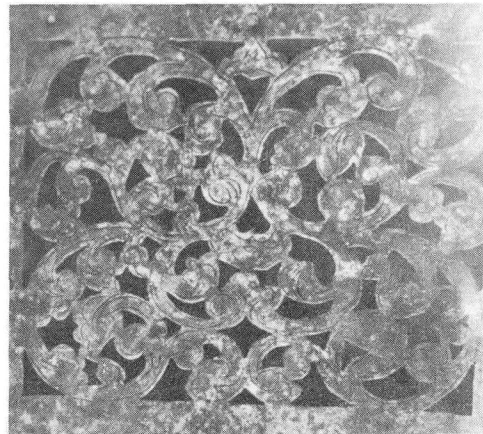


圖31-② 昌枋 마무리裝飾

〔註〕

- ① 寺利建物址로는 四天王寺址의 本塔, 金堂, 望德寺址의 木塔, 感恩寺址의 金堂, 講堂, 中門, 千軍里寺址의 金堂, 講堂, 中門, 佛國寺의 無說殿 등이 알려져 있다. 雁鴨池 周邊의 建物址 資料는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本 文編에 실려 있다.
- ② 金富弼 『三國史記』卷第三十三 屋舍條에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六 頭品, 室長廣不得過二十一尺」 「五頭品, 室長廣不得過十八尺」 「四頭品, 至百 姓, 室長廣不得過十五尺」이 있다.
- ③ 興教寺 玄裝塔(六六九年), 嵩山 會善寺 淨藏禪師塔(七四六年)。
- ④ 慈恩寺 大雁塔 門楣石 佛殿圖(七〇四年)。
- ⑤ 東大寺 法華堂外部(七四九年 以前), 法隆寺 夢殿(七三九年), 傳法堂(七六 一年 以前)等。
- ⑥ 申榮勳 · 「激鑿禪師浮屠의 木造樣式」 『考古美術』 四卷一號, 一九六三年一月。
- ⑦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一九七八年十二月。
- ⑧ 劉敦楨 · 『中國古代建築史』 p. 119, 一九八〇年十月。
- ⑨ 後漢前期의 河南三門峽劉家渠七三號出土陶樓。
- ⑩ 拙稿 「南禪寺大殿」 『建築文化』 一九八三年 九月, 「佛光寺大殿」 『建築文 化』 一九八三年 十月號。
- ⑪ 近藤豊 · 『古寺細見』 一九七〇年 七月, 大河出版。
- ⑫ 雙峰寺 激鑿禪師浮屠, 廉居和尚浮屠,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 鳳巖寺 智 證大師 寂照塔, 實相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 石南寺 浮屠, 陳田寺址 浮屠, 望海寺址 石造浮屠等에 門扉가 浮彫되어 있다.
- ⑬ 日本建築中 上창과 板門의 實例는 法隆寺 金堂, 唐招提寺 金堂, 東大寺法 華堂, 法隆寺 夢殿, 新藥師寺 本堂等이다.
- ⑭ 鈴木嘉吉 · 「文物修理」 『建築雜誌』 一九七六年 一月號。
- ⑮ 伊藤延男 · 澤村仁 · 關口欣也 · 「新中國で發見された重要建造物」 『建築雜誌』 一九六九年 一月號。
- ⑯ 關口欣也 · 「朝鮮三國時代建築と法隆寺金堂の樣式的系統」 『日本建築の特質』 太田博太郎博士還曆記念論文集, 一九七六年 十月, 中央公論美術出版。
- ⑰ 羅哲文 · 「孝堂山郭氏墓石祠」 『文物』 一九六一年 四 · 五月。
- ⑱ 高句麗의 古刹자지붕형식 例는 藥水里古墳, 城郭圖, 遼東城塚 遼東城圖, 安 城洞大塚(龍岡大墓) 門樓圖, 三室塚 城郭圖, 安岳一號墳等이다.
- ⑲ 『中國營造學社彙刊』 第五卷 第二期 圖版十二。
- ⑳ 四川省博物館 · 「四川牧馬山灌漑渠古墓清理簡報」 『考古』 一九五九年 八月。
- ㉑ 敦煌文物研究所考古組 · 「敦煌莫高窟北朝壁畫中建築」 『考古』 一九七六年 二

月。

- ㉒ ②과 同一。
- ㉓ 「적임팔자형」은 新造語로 日本用語로는 「鑿畫(시교로부끼)이라 함. 百濟 時代의 遺物로는 扶餘窟岩出土山景文博에 보이는 家形에 있으며 日本資料중 에는 法隆寺의 玉虫(시지붕이 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 ㉔ 文化部社會文化事業局 『麥積山石窟』 圖版二十五。
- ㉕ 關口欣也 · 「朝鮮三國時代建築と法隆寺金堂의 樣式的系統」 『日本建築의 特質』 一九七六年 十月。
- ㉖ 前掲 劉敦楨 · 『中國古代建築史』 p. 123.
- ㉗ 前掲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pp. 120~121.
- ㉘ 前掲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p. 115.
- ㉙ 金正基 · 「木造建物屋蓋發生考」 特別 팔자지붕에 대하여. 『考古美術』 一九七六年 六月, 分谷崔淳雨先生華甲紀念論文集。
- ㉚ 前掲 ·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 ㉛ 이 예는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八八二年頃), 大安寺 寂忍禪師 照輪清淨 塔(八六一年頃)이다.
- ㉜ 鈴木嘉吉 · 「法隆寺東院伽藍と西院諸堂」 一九七四年 八月, p. 12. 岩波書店。
- ㉝ 尹武炳 · 「新羅時代 欄干의 裝飾文樣」 『美術資料』 一九六〇年 十二月, 拙稿 「雁鴨池出土 建築部材에 對하여」 『張起仁先生回甲論叢』 一九七六年 五月。
- ㉞ 前掲 敦煌文物研究所 「敦煌莫高窟北朝壁畫中建築」 『考古』 一九七六年 二月。
- ㉟ 幸其一 · 「四川唐代摩崖中反映的建築形式」 『文物』 一九六一年 十一月。
- ㊱ 前掲 ·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圖版編에 資料寫眞이 실려있음. 一九七八年 十二月。
- ㊲ 前掲 · 金富弼 ·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第二 屋舍條에 〈不飾以金銀鍮石 五彩〉가 보인다.
- ㊳ 一然 · 『三國遺事』 卷第二 文虎王 海敏條。
- ㊴ 前掲 · 金富弼 ·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屋舍條。